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2年 8月  
教育學碩士(日語教育)學位論文

「そうだ・ようだ・らしい」의  
意味用法에 관한 考察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許 順 貞

「そうだ・ようだ・らしい」의  
意味用法에 관한 考察

A Study of Semantic Usage in Souda, Youda,  
Rashii

2012年 8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許 順 貞

「そうだ・ようだ・らしい」의  
意味用法에 관한 考察

指導教授 丁 意 祥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日語教育專攻)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12年 4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許 順 貞

許順貞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朴青國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丁意祥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金仁炫 印

2012年 6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 目 次

제1장 序 論 .....	1
제1절 연구의 대상 및 목적 .....	2
제2절 선행연구 .....	4
1. 모달리티 .....	5
2. 「そうだ」「ようだ」「らしい」에 대한 선행연구 .....	9
제2장 本 論 .....	15
제1절 「そうだ」「ようだ」「らしい」의 의미용법 .....	15
1. 「そうだ」의 의미용법 .....	15
2. 「ようだ」의 의미용법 .....	23
3. 「らしい」의 의미용법 .....	28
제2절 「そうだ」「ようだ」「らしい」의 상호비교 .....	33
1. 「そうだ」와 「ようだ」의 비교 .....	33
2. 「ようだ」와 「らしい」의 비교 .....	37
3. 「そうだ」와 「らしい」의 비교 .....	41

제3장 結 論 ..... 45

참고문헌 ..... 50

## 表 目 次

<표-1> 「そうだ」와 「ようだ」의 비교 .....	13
<표-2> 「そうだ」와 「ようだ」의 비교 .....	37
<표-3> 「ようだ」와 「らしい」의 비교 .....	41
<표-4> 「そうだ」와 「らしい」의 비교 .....	44
<표-5>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의 비교 .....	48



# ABSTRACT

## A Study of Semantic Usage in Souda, Youda, Rashii

Heo Sun-jeong

Advisor: Professor Jung Eui sang

Majo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report focuses on semantic usage of the frequently used the auxiliary verb which has meaning of infer in Japanese, especially 'souda', 'youda', 'rashii' and shown the specific relationship between speaker and information.

The common meaningful feature of 'souda', 'youda', 'rashii' is not the format for the representation of objective facts. With external information, it expresses speaker's forecasts, estimates, judgments, and subjective attitudes. It can be called 'modality' in linguistics.

The usages of 'souda' are description through observation of the target's appearance or attitude, uncertain estimating judgment, expectation·prediction about tentative·unconfirmed situation, just before, non-reality(not realized). Next, the usages of 'youda' are analogy, uncertain conclusions, and mode. Lastly, the usages of 'rashii' are secondary judgment, uncertain judgment, information transmission.

By comparison with the 'souda', 'youda', 'rashii', in terms of speaker dependence, 'souda' and 'rashii' were low, 'youda' was high. In terms of information dependence, 'rashii' was the highest, 'souda', 'youda' followed by, 'youda' had the lowest. In terms of information ever, it was found that 'souda'

was a direct information, 'rashii' was an indirect information, 'youda' was a direct and indirect information. 'youda' showed the highest responsibility for the comments, whereas 'rashii' showed the avoidance of responsibility for the comments.

## 제 1장 序 論

文의 성립이나 發話의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나타는 것은 화자(필자)와 청자(독자)이다. 文을 구성하여 전달하는 사람이 화자(필자)가 되고, 표현된 文을 받아들여 이해하는 사람이 청자(독자)가 된다. 지극히 당연한 말 이지만, 文과 發話의 성립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화자가 없다면 文 그 자체를 성립할 주체가 없으므로 文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청자가 없다면 文은 성립의 이유인 전달의 기능을 가지지 않게 되므로 성립의 이유가 없어진다. 소위 혼잣말이라고 하는 것에도 「자기 자신」이라는 청자가 전제되고 때문에 文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청자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발화를 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文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바로 文의 재료가 되는 世界이다. 이 世界는 화자와 대립되는 客觀의 世界이다. 文은 주로 현실세계를 소재로 하여 나타나고, 거기에 화자의 主觀이나 판단 등의 능동적인 인식이 덧붙여져 표현된다.

이렇게 나누는 방법은 文의 구조를 파악할 때,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발화 내용에 반영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크게 2분하여 고찰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화자에게 있어 客體인 世界를 서술하는 부분이고, 후자는 그 發話를 구성하는 화자의 主觀的인 태도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위와 같은 방법은 文의 구조를 형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文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文의 구조를 파악할 때, 文의 객체화된 세계를 서술하는 부분은 命題(proposition), 言語事態, コト, 叙述(内容), デイク툼(dictum) 등으로 불리고,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부분은 모달리티(modality), 言語態度, ムード, 陳述、モードゥ스(modus) 등으로 불리고 있다. 각 명칭이 나타내는 실재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본고에서는 전자를 命題, 후자를 모달리티로 칭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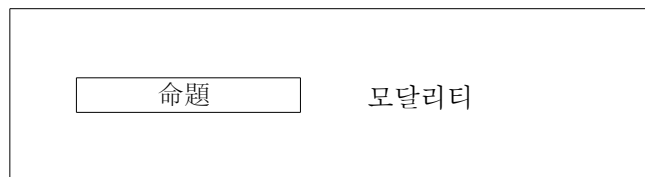
文은 화자에게 있어 客体가 되는 外部世界 즉 命題와, 화자 자신의 主觀인 심리적 태도나 판단, 전달 태도 등의 반영, 즉 모달리티가 하나가 되어 이루어진다.

이 모달리티에 따라 청자는 이 文이 화자의 주관적 서술인가, 아니면 객관적 서술인가를 판단하게 되며, 文 전체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文은 모달리티에 의해, 화자의 文에 대한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 문 의 의미도 상당히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달리티는 언어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 1절 연구의 대상 및 목적

서문에서 文의 구조를 파악함에 있어 객체화된 세계를 나타내는 부분을 「命題」라고 하고, 命題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심적태도를 나타내는 부분을 「모달리티」라고 하였다.

文을 命題와 모달리티로 나누어 보는 관점에서 일본어文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의미- 통어구조를 이룬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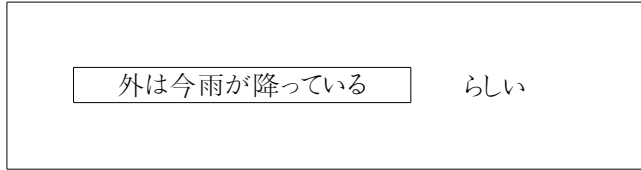


<그림-1> 日本語文의 구조

「外は今雨が降っているらしい」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이 文의 命題와 모달리티를 구분하여 <그림-1>의 방법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

1) 宮島達夫·仁田義雄、『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上)』、くろしお出版、1995、p.1.

다.



즉, 모달리티의 일종인 「らしい」가 「外は今雨が降っている」라는 命題를 감싸 안는 형식으로 문이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sup>2)</sup>

이러한 모달리티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命題내용이 참임을 확실한 사실로서 서술하는 「断定」과, 불확실한 것으로써 서술하는 「推量」으로 크게 2분한다. 이 때, 단정표현은 무표의 형식으로 文에 나타나 命題내용에 일말의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고 참으로 서술한다. 한편, 추량표현은 断定표현의 文末부분에 「だろう」, 「ようだ」, 「らしい」, 「そうだ」, 「みたいだ」, 「かも知れない」, 「にちがいない」 등의 추측형식을 덧붙여, 화자가 불확실하나마 命題내용에 대해 참으로 인정하는 서술태도를 나타낸다.

이 推量の 모달리티 중에서 「だろう」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순수 판단형」의 추량표현이라고도 한다. 반면 「(し)そうだ」, 「ようだ」, 「らしい」는 각각 様態, 추정 등으로 불리며, 어떠한 근거에 의존한 판단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근거 의존 판단형」의 모달리티라고 부를 수 있다.<sup>3)</sup>

본고에서는 먼저 모달리티의 개념과 선행연구를 되짚어 보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일본어의 추량조동사로 분류되는 조동사 중, 비교적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같은 맥락

2) 진술부사인 「たぶん」이나 「おそらく」 등을 술어 앞부분에 첨가하여 모달리티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모달리티는 命題를 둘러싸는 형태로 위치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文末 모달리티만을 다루기로 한다.

3) 나성영(1995) 「日本語モダリティにおける推論型の意味機能」, 『日本学報』 35 에서의 분류를 차용하였다.

에 있다고 생각되는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를 대상으로 그 의미용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의 의미용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용례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본고에서 필자는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를 「근거 의존 판단형」의 모달리티로 보고, 일단 이들 추량표현을 추량 조동사라고 하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 두어, 모두 추량을 표현한다고 전제하고, 일본어의 文末 모달리티 표현 중 조동사가 文末을 좌우한다는 입장에서,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가 文의 의미에 어떻게 관계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현대 일본어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일본어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추량 조동사인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를 대상으로 의미 용법을 연구하고, 상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데 있다.

먼저, 본고에서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모달리티에 대한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추량 조동사인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가 나타내고 있는 기능을 화자의 정보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에 대한 연구의 흐름과 그 연구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고찰해 나가려고 한다.

둘째, 같은 기준으로 예문을 통해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의 의미용법을 제시하면서, 이들이 상호에 어떤 관련성과 차이점을 가지는가라는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 제 2절 선행연구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에 대한 일반적인 선행연구를 概觀하기 앞서,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달리티에 대해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제 2절에서는 모달리티의 일반적인 개념과 일본어 학계에서의 기존 연구를 살펴보

고, 모달리티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 후에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에 대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짚어 보고자 한다.

## 1. 모달리티

文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文의 형태적인 면을 중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서론에서도 언급한 文의 의미를 중심으로 文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주로 文의 형태를 중시하는 방법은 文을 「主部」와 「述部」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연구를 하고, 文의 의미를 중시하는 방법은 文의 의미를 파악하여 「객관화된 命題」와 그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심적 태도」로 분류하여 文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구를 한다.

文의 의미를 고찰하는 방법 중에는 文 전체의 의미를 부분의 의미들의 합성으로써 받아들이는 방식이 있다. 이미 본고의 서론에서 文이 객체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命題」 부분과 화자의 주체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모달리티」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에 대해 언급한바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文의 기본적 구성이 「命題」와 「모달리티」의 합성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본어에 있어서의 모달리티론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寺村秀夫의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1984)이다.

寺村秀夫(1984)는 「ムード」라는 이름으로 모달리티를 정의하고 분석하고 있는데, 寺村秀夫의 「ムード」라는 개념은 용언의 활용형뿐만 아니라, 무드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文末형식의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寺村秀夫는 文을 「こと」와 「ムード」로 나누어 보았는데, 寺村가 말하는 「こと」는 화자가 객관적인 세계의 事象·심리를 표현하는 부분을, 「ムード」는 ことを 소재로 화자

의 태도를 상대에게 표현하는 부분을 일컫는다.

寺村는 文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활용형을 「一次的ムード」, 활용형의 뒤에 붙는 概言의 助動詞類와 설명의 助動詞類를 「二次的ムード」, 종조사, 取り立て助詞, 감동사, 間投詞를 「三次的ムード」라고 칭하고 있다.

寺村는 「概言」의 조동사류에 대해

ある事態の真偽について、それを自分が直接見たり、経験したのでないから確言はできないが、自分の過去の経験、現在持っている知識、情報から概ねこうであろうと述べるもの。

라고 정의 하고 있고, 「だろう」, 「ようだ」, 「らしい」, 「(し)そうだ」, 「にちがいない」, 「かもしれない」 등을 概言의 조동사류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설명」의 조동사류에 대해서는

現に実際として聞き手が知っていることについて、その事態が生じる理由・原因とか、あるいはある状態に照らしてみた場合の特別な意味、意義とかを相手に説明しようとするもの。

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는 「わけだ」, 「ものだ」, 「のだ」, 「ことだ」, 「はずだ」 등을 들고 있다.<sup>4)</sup> 이것은 그 전까지는 조동사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 까지 조동사로써 분류한 것이다.

寺村秀夫의 모달리티론에서는 화자의 심적 태도의 표출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며, 주절뿐만 아니라 종속절에도 모달리티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모달리티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는 조동사, 조사, 감탄사, 부사 등을 꼽았다.

이후, 이러한 연구의 흐름에 입각하여 모달리티의 전체적인 체계를 수립한 대표적인

---

4) 寺村秀夫, 『日本語のシタクスと意味Ⅱ』, 1984, p.222-p.223



학자로는 仁田義雄와 益岡隆志라는 두 학자를 꼽을 수 있다.

仁田義雄(1991)는 『日本語のモダリティと人称』에서 모달리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文에는 전달하려는 내용인 言表事態<sup>5)</sup>와 함께 말하는 이의 심적인 태도나 판단을 나타내는 文 전달태도로 文의 양대 구성요소의 하나이다. 이 양대 구성요소 중 말하는 이의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부분을 모달리티라 하고 모달리티는 주관성이 언어화된 것이라는 개념으로, 판단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주체에 직접 관계된 사실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sup>6)</sup>

仁田義雄는 모달리티를 크게 「言表事態指向의 모달리티」와 「発話・伝達 모달리티」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仁田가 말하는 「言表事態指向의 모달리티」란, 発話時に 있어서 命題에 대한 화자의 파악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의지, 희망, 원망 등을 표현하는 「情意系」와 추량 등의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認識系」로 나누고 있다. 이 중 「認識系」는 命題를 어떻게 파악 하였는지에 관한 화자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命題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命題의 내용을 확실한 것으로 표현하는 제로형식의 문장과 대립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文末모달리티 형식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だろう」, 「はずだ」, 「ようだ」, 「らしい」, 「そうだ」, 「にちがいない」, 「かもしれない」 등이 있다.

「発話・伝達모달리티」는 언어활동의 기본적인 단위인 文을 둘러싼 화자의 発話・伝達的 態度를 표현한 것으로, 이는 発話時に 있어서 화자의 発話・伝達 態度가 어떠한 유형의 発話・伝達的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법표현이다.

---

5) 言表事態라는 용어는 仁田義雄가 사용한 용어로, 전달하려는 내용을 나타내는 부분, 즉 命題部를 言表事態라 하였다.

6) 仁田義雄, 『日本語のモダリティと人称』、ひつじ書房、1991、p.18.

仁田는 「発話・伝達모달리티」를 働きかけ(명령, 의뢰, 권유 등), 表出(의지, 희망, 원망 등), 述べ立て(현상 묘사문, 판단문 등), 問いかけ(판단의문, 정의나 의향에 관한 의문 등)의 네 가지로 하위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하위분류에는 終助詞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편, 益岡隆志(1991)는 『モダリティの文法』에서 ムード와 모달리티를 구별하여 언급하고 있다.

益岡에 따르면 ムード의 개념은 「동사류의 굴절체계에 관한 문법범주로, 굴절체계를 가지는 유형의 언어에서만 의미가 있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모달리티에 대해서는 「언어의 개별적·유형적 형식에 구속되지 않는, 일반성이 높은 개념이므로, 표출방식은 언어에 따라 다양하지만, 어떠한 형태오든 모든 언어에 관련이 있는 문법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益岡는 모달리티를 「객관적으로 파악된 상황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 표현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결국 말하는 이의 표현 태도에 있어서의 심적 사항이 언어로써 전달 되는 것」<sup>7)</sup>을 의미하고 있다.

益岡는 일본어의 모달리티를 「表現系 모달리티」와 「判断系 모달리티」로 분류한다. 表現系 모달리티에는 演述型, 訴え型, 疑問型 등의 문을 표현하는데 있어 문을 유형화하는 표현유형의 모달리티, 「よ」「ね」 등의 청자에 대한 고려를 표현하는 모달리티, テス体나 マス体 등의 정중함의 유무를 표현하는 모달리티가 속해 있다.

한편 判断系 모달리티는 2분하여, 「一次的 모달리티」와 「二次的 모달리티」로 나누고 있는데, 一次的 모달리티는 표현하는 사람의 표현하는 당시의 판단 밖에 나타낼 수 없는데 반해, 二次的 모달리티는 표현하는 사람의 판단이지만 그 판단의 객관화가 허락되는 모달리티라고 할 수 있다.

一次的 모달리티에는 命題에 대한 未定이나 판단, 판단보류 등을 표현하는 「真偽判断」, 命題에 대한 화자의 가치 판단을 표현하는 「価値判断」, 命題 사이의 통합적인

---

7) 益岡隆志, 『モダリティの文法』、くろしお出版、1991、p.29-30.

관계에 대해 관련성을 표현하는 「説明」이 포함되어 있고, 二次的 모달리티에는 命題에 대한 시간상의 판단을 나타내는 「テンス」, 命題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 등을 표현하는 「みとめ方」, 命題 사이의 범렬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取り立て」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益岡가 언급하는 모든 모달리티를 다루기에는 지면상의 무리가 따르므로, 본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一次的 모달리티의 「真偽判断의 모달리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도록 하겠다.

「真偽判断 모달리티」는 화자에게 있어서 命題 내용의 진위가 이미 결정된 「規定진위판단」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未定진위판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規定진위 판단」은 더 나아가 「단정」과 「단정 보류」로 나누고 있다. 단정은 대상이 되는 命題가 참임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술어에 어떤 것도 붙지 않는 無標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에 반해 단정보류는 대상이 되는 命題가 참이라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だろう」, 「らしい」, 「ようだ」와 같은 표현이 붙어 표현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益岡는 일본어를 이 단정 보류를 나타내는 술어가 풍부하게 나타나는 언어라고 주장하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의 문법을 연구하는데 있어 「추량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하고 있다.<sup>8)</sup>

益岡가 말하는 이 「단정보류 모달리티」는 흔히 말하는 「추량 표현」이라는 의미와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된다.

## 2.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에 대한 선행연구

앞서 概觀해 본 모달리티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8) 上掲書, p.111

본고에서 고찰하고자하는 추량의 조동사「そうだ」, 「ようだ」, 「らしい」는, 먼저 寺村의 정의를 따르자면 「三次的ムード」의 「概言」의 조동사류로 분류되는 모달리티이고, 仁田의 분류에 따르면 「言表事態指向의 모달리티」의 「認識系」로 분류되는 모달리티이다.

하지만 益岡의 분류를 따르면 「そうだ」는 「ようだ」와 「らしい」와는 조금 다른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益岡에 따르면 「そうだ」는 命題 내용 전체의 진위에 관련이 있는 「ようだ」, 「らしい」와는 달리, 술어부만을 받아 현상을 재빠르게 캐치하여 묘사하는 표현이므로 「진위판단 모달리티」의 「단정 보류」에는 속하지 않는 표현이다. 그는 「そうだ」는 様態로 분류하고 있다.<sup>9)</sup>

時枝誠記(1950)는 추량 조동사로 「らしい」와 「だろう」를 규정하고, 「ようだ」와 「そうだ」는 제외시켰다. 또한 「らしい」와 「だろう」의 구분은 객관적인 상황의 유무에 의하여 분석하였다.<sup>10)</sup>

岡村和江(1969)은 「らしい」를 객관적 상태에서 추측하는 추량표현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ようだ」는 관정의 「だ」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확언도가 강하다고 하였다. 즉, 「ようだ」는 객관적인 성질이 강한 반면, 「らしい」는 화자의 주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고문에서는 「らしい」보다 「ようだ」가 더 많이 사용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金田一春彦(1953)는 「ようだ」를 「だろう」와 비교하여 과거나 타인에 대한 추량도 나타낸다고 분석하였다.<sup>11)</sup>

鈴木一彦(1972)는 様態의 「そうだ」의 의미용법을 「様態」와 「予測」으로 이분하고 있다. 먼저 様態는 「그러한 의견을 하고 있다. 또는 의견으로 판단해서 그러한 성

9) 益岡는 같은 단행본에서 概言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推定 — ヨウダ, ラシイ, ダロウ, ミタイ, ハズダ

直感的確言 — ニチガイナイ

様態 — ソウダ

10) 時枝誠記, 『日本語文法口語編』, 岩波書店, 1950, p.131.

11) 時枝誠記, 上掲書, pp. 206-207.

질, 상태로 보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予測은 「그 움직임·가능성이 지금부터 실현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情勢)에 있다. 또는 지금의 상태(情勢)로부터 판단하여, 지금부터의 움직임·가능성이 실현 될 것이 예측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2)</sup>

柏岡(1980)은 「ようだ」와 「らしい」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よ<sup>う</sup>だ를 사용한 서술에서 판단은, 화자가 자기의 감각에 의해 포착한 판단재료를 바탕으로 직감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략- ら<sup>い</sup>しい를 사용한 서술은 타자의 판단 혹은 객관적으로 관찰되어, 추측의 자료가 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 2차적판단을 나타낸다」<sup>13)</sup>

阪田·倉持(1980)는 「らしい」는 어떤 사태에 대해, 상당한 확신을 가지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 그렇게 파악해도 좋은 상황이라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형식이라고 주장한다.<sup>14)</sup> 이는 柏岡의 해석과는 상이한 해석이다.

田野村忠温(1991)는 「らしい」에 대해 「어떤 근거에서 (이미 정해진) 사실은 ~이라고 추정된다」고 하며, 어떤 근거에 기초한 추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다루고 있고, 「よう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견이나 인상이 어떠한가를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근거에 기초한 사실의 추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5)</sup>

田野村(1992)는 樣態의 「そ<sup>う</sup>だ」의 기본적 의미를 「~予想される, ~予想される気分である」로 규정하며, 樣態의 「そ<sup>う</sup>だ」라고 불리는 「そ<sup>う</sup>だ」는 사실상 「樣態」가 아닌 「予想」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16)</sup>

나성영(1995)의 경우, 「認識性 모달리티」의 한일 대응 관계에 대해 분석하면서, 命題를 구성하는데 있어 화자의 관여여부에 따라 「判断型」과 「伝聞型」으로 나누고, 「판단형」은 판단의 근거가 화자 자신의 경험이나 내적 지식에 의한 것인지, 화자 외

12) 鈴木一彦·林巨樹, 『品詞別日本文法講座·助動詞I』, 明治書院, 1972, pp.454-455

13) 柏岡珠子, 「ヨウダとらしいに関する一考察」, 『日本語教育』41, 1980, p.177

14) 阪田雪子·倉持保男, 『文法II-助動詞を中心にして-』, 国際交流基金, 1980, p.127

15) 田野村忠温, 「らしい」と「ようだ」の意味の相違について, 『言語学研究』10, (1991) p.63, p.68

16) 田野村忠温, 「現代語における予想の「そ<sup>う</sup>だ」の意味について-「よ<sup>う</sup>だ」との対比を含めて-」, 『国語語彙史の研究』12, 1992, p.325, p.328

부의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따라 「순수 판단형」과 「근거 의존 판단형」으로 나누고 있다. 물론 전자가 「순수 판단형」이고 후자가 「근거 의존 판단형」이다.

다음 표는 나성영이 분류한 표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편집한 것이다.<sup>17)</sup>

---

17) 나성영, 「日本語モダリティにおける推論型の意味機能」, 『日本学報』 35, 1995, 1.3.2.1에서 인용

分類		日本語
순수 판단형	推測	「かもしれない」: 확신도가 가장 낮다.
	推量	「だろう」: 命題에 대한 확신도는 「かもしれない」보다 높다. 진술을 온화하게 하는 용법도 있다.
근거 의존 판단형	樣態	「(し)そうだ」: 命題 내용은 비과거. 눈앞에 있는 사물의 내적 상태를 예측. 눈앞의 동적 사태가 곧 실현 될 것 이라는 것을 예측. 화자 몸의 내적 상태에 대해 과장하여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推定	「ようだ」: 직접적 근거. 命題의 성립에 어떤 근거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중점을 둔다.
		「らしい」: 간접적 근거. 命題의 성립에 어떤 근거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중점을 둔다.
	推論	「にちがいない」: 확신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중점. 어디까지나 화자의 책임하의 추론.
		「はずだ」: 命題의 성립은 이론적 사고에 근거한 당연한 결과임을 나타낸다. 근거에 중점.
전문형	「(伝聞の)そうだ」: 타인으로부터 들은 언어적 정보를 전달한다. 구어와 문어 모두 사용된다.	
	「という」: 타인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일반적 정보로서 전하여 화자와는 거리를 두는 심적 태도. 구어체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표-1> 나성영 분류표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나성영은 「(し)そうだ」, 「ようだ」, 「らしい」를 「근거 의존 판단형」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다. 나아가서 命題가 어떤 종류의 근거에 의존하여 발화되고 있는가라는 기준에 따라 「(し)そうだ」는 「様態」로, 「ようだ」와 「らしい」는 「推定」로 하위분류하고 있다.



## 제 2장 本論

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본고의 연구 대상인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에 대하여 먼저 그 의미용법을 알아보고, 정보출처와 화자의 태도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그 잠정적인 판단이 어떤 정보를 근거로 내려진 것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시말해 직접적인 정보에 의한 것인지 간접적인 정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정보인지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판단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각각 표현의 정보에 대한 의존도 등 공통점과 차이점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으로 본고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 제 1절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의 의미용법 연구

추량표현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는 일본어 담화에 있어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표현이다. 발화의 상황이나 화자의 내적 판단, 命題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 1절에서는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의 예문을 통해 각각의 의미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여기서는 화자가 근거로 생각하는 정보의 정확성, 각 표현의 화자에 대한 의존성, 판단의 근거가 강조되고 있는가,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 등의 측면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시켜 나가려고 한다.

#### 1. 「そうだ」의 의미용법

「そうだ」는 「そうだ」의 앞에 오는 술어와의 접속 형태에 따라 伝聞의 「そうだ」와 様態의 「そうだ」로 나눌 수 있다. 伝聞의 「そうだ」는 형태적으로 술어의 보통형에 접속하지만, 様態의 「そうだ」는 동사의 연용형, 형용사의 어간에 접속하는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추량표현의 의미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므로, 伝聞의 「そうだ」는 다루지 않고, 様態의 「そうだ」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다.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様態의 「そうだ」의 기본적인 의미를 정리하자면 「미정, 혹은 미확인의 사태에 대해 화자가 어떤 모습이나 상태에 근거하여, 그 실현·성립과 진위성을 예상하는 형식」이라고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써 다음과 같은 文을 들 수 있다.

(1) このかばんは重い。

(1') (진열된 가방을 보고) このかばんは重そうだ。

(1'') (화자가 가방을 들어보고) このかばんは重そうだ。(\*)<sup>18)</sup>

위 예문은 様態의 「そうだ」에 관한 예문이다. 예문(1')과 예문(1'')는 무표의 단정 표현인 예문(1)에 「そうだ」를 붙인 문장으로 발화시 나타나는 문장의 형태는 동일하다. 그러나 문장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발화시의 상황에 따라 (1')의 문장은 성립되지만 (1'')의 문장은 성립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가 성립하고 (1'')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1')는 화자가 아직 가방을 들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가방을 눈으로만 보아 실제 가방의 무게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발화인데 반해, (1'')는 현재 화자가 가방을 들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방의 무게(이 경우 무

---

18) 본고에서는 以下, 문법상 성립되지 않는 문장의 경우에는, 문장 뒤에 「(\*)」의 표식을 붙이기로 한다.

겹다는 사실)가 이미 화자에게는 정해진 사실, 즉 확정된 사실이 되므로 화자가 추량 판단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양태의 「そうだ」는 화자가 사물이나 대상의 모양이나 태도를 보기만 하고 ‘이러 이러할 것이다’라고 묘사를 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사실이나 화자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そうだ」를 붙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사실은 다음 예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2) 彼は勝負に負けて悔しそうだった。

(3) 私はその知らせを聞いて悔しそうだった。(\*)

(2') 彼は勝負に負けて悔しかった。(\*)

(3') 私はその知らせを聞いて悔しかった。

예문(2)와 예문(3)은 모두 「くやしい」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그러나 문장에 따라 분한 감정을 가진 주체가 다르다. 예문(2)의 주체는 「彼」로 제 3자인데 반해, 예문(3)의 주체는 「私」로 화자 자신이 감정의 주체가 된다.

감정이란 개인적인 사태로 자신이 아니면 감정을 확정짓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타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 (2')와 같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문을 작성할 수는 없다. (2)와 같이 타인의 감정은 미확인 사실에 대한 예측·예상을 나타내는 「そうだ」로 표현 가능하다.

그러나 (3)의 경우는, 발화자 자신의 감정이기 때문에 굳이 예측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감정은 화자 안에서는 이미 정해진, 확인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량 판단은 불필요하다. 그러므로 (3)의 예문은 성립이 불가능하다.

樣態의 「そうだ」는 불확실한 추정관정을 나타내는데, 이 관정은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낸다. 「そうだ」는 화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화자 자신이 주어가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そうだ」의 문장을 작성할 경우 그 命題에 대해 판정하는 것은 화자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문장이 화자 자신이 아닌 타인에 의해 작성되고, 타인에 의해 命題가 판정된 경우에는 「そうだ」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다음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4) 昨日のニュースによると、日本はすでに高齢社会に進入していそうだ。(\*)

예문(4)의 문장을 보면, 「昨日のニュースによると」라는 부분에서 판단의 근거(여기서는 어제 뉴스)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본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命題는 화자 자신이 작성한 命題가 아니고, 판단 역시 화자가 내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예문(4)와 같이 자신이 작성·판단한 문장이 아닌 경우에는 「そうだ」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ようだ」나 「という」, 伝聞의 「そうだ」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4)와 비슷한 다른 예문을 보도록 하겠다.

(5) 問い合わせてみたが、未開封のままだったら返品できそうだ。

예문(4)는 성립되지 않았는데 예문(5)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문(5)에도 「問い合わせてみたが」라는 제 3의 정보원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 예문의 뒤에 오는 「未開封のままだったら返品できる」라는 문장이 화자가 아닌 타인이 작성·판정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문맥이 아니기 때문에 예문(5)의 문장은 성립이 인정된다.

예문(5)는 화자가 문의한 결과, 타인이 아닌 「화자 자신이」 개봉하지 않은 상품이라면 반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판단한 문장이 되는 것이다. 예문(5)는 상황에 따라

서는 伝聞의 「そうだ」나 「らしい」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そうだ」는 화자 자신이 작성하고, 화자 자신의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표현이므로, 화자는 자신의 판단이 잠정적으로 옳다고 간주한다. 자신이 믿지 못하는 판단을 주체적으로 내리는 것은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문(8)의 경우, ‘그녀의 말은 거짓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고 바로 그 뒤에 ‘でも、信じてない’라는 식의 문장은 성립할 수 없다.

(6) 今にも降りだしそうだ。

(7) このケーキは見た目からしてとてもまずそうだ。

(8) 彼女の言葉は嘘ではなさそうだ。

위 문장은 모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화자가 주관적으로 추측하여 잠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예문(6)은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을 때 적합한 발화이다. 이는 매우 가까운 미래에 대한 추측이며, 하늘의 모양이나 바람, 습기 등의 현재의 상황에 근거하여 내린 추측이라고 할 수 있다.

예문(7)은 시각적 정보인 케이크의 모양을 보고 그 케이크가 맛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예문(8)역시 화자는 그녀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근거, 예를 들면 그녀의 표정이나 태도, 혹은 정황근거를 가지고 불확실한 추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문(6), (7), (8)의 표현이 눈앞에 펼쳐진 정황을 근거로 어떤 추측을 도출해 낸 문장이라면, 다음의 예문(9), (10)은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눈앞에 펼쳐진 정황은 아닌 경우이다.

(9) マラソンなんて、体の弱い私にはとてもできそうもない。

(10) いかにもあいつが言いそうなことだ。

예문(9)와 (10)은 어떤 근거에 기초하여 화자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예문(6), (7), (8)이 눈앞의 상황을 근거로 하였다면 예문(9)와 (10)은 화자의 내적 정보인 축적된 지식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을 하고 있다.

불확실한 추정판정의 「そうだ」는 대체적으로 그 정황과 화자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필연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추측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필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そうだ」는 직전을 나타내는 용법도 가지고 있다. 이 직전을 나타내는 용법은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임을 의미한다.

(11) あまりの悲しさにいまにも涙がこぼれそうです。

(12) 車によって吐きそうだった。

예문(11)과 (12)는 모두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다. 예문(11)의 경우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아직 눈물이 나온 것은 아니고, 예문(12)의 경우 구토를 할 것 같지만 구토를 한 것은 아니다. 모두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임을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다. 이 직전을 나타내는 용법은 미실현이기 때문에 「いまにも」와 같은 부사와 함께 쓰이는 일이 많다.

위의 직전을 나타내는 용법과 비슷한 용법이 바로 「非実」의 용법이다. 「非実」이 직전의 용법과 다른 점이 있다면, 화자가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점이다. 「非実」은 비유적으로 표현하거나 자신의 상태에 대해 과장하여 나타내는 용법이다.

(13) 憧れの人に声をかけられて心臓が爆発しそうだった。

(14) 目が破裂してしまいそうに痛い。

예문(13)의 화자는 실제로 자신의 심장이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문(14)의 화자 역시 눈이 실제로 파열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두 문장 모두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그것을 비유적으로,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非実」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직전의 용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전은 금방이라도 그 상황이 일어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반면, 「非実」은 그 상황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そうだ」의 의미용법을 살펴보았다.

「そうだ」의 의미용법에는 様態, 추정판단, 직전, 非実이 있었다. 직전과 非実을 제외한 様態와 추정판단의 「そうだ」는 화자가 어떤 근거 하에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부터 「そうだ」는 찬단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15) このりんごは赤くておいしそうだ。

(16) 佐藤の顔はひどく不愉快そうだった。

(17) 大きな声だな。下までとどきそうだな。

(4) 昨日のニュースによると、日本はすでに高齢社会に進入していそうだ。(\*)

예문(15)와 (16)은 시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 예문(15)는 빨간 사과를 보고 그 사과 맛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고, (16)은 佐藤씨의 얼굴을 보고 그가 불쾌한 기분임을 추측을 하고 있다. 이는 한 번 보고 느끼는 인상과

같은 것으로 「시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추측의 근거로 삼고 있다.

예문(17)의 경우는 같은 감각이기는 하지만, 「청각」을 정보원으로 삼고 있다. (17)은 큰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래까지 들릴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단,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청각정보가 예문(4)와 같이 타자에 의해 그 문장이 작성·판단한 문장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언어 정보인 경우에는 「そうだ」를 사용할 수 없다.

예문(18)과 (19)는 화자의 「내적 정보」에 의존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내적정보란 화자의 감(느낌)이나 기존의 지식, 과거의 경험 등을 일컫는다.

(18) あなた本当に日本語を教えられそうだ。

(19) この分ならレポートは明日まで終わりそうだ。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자면, 예문(18)은 화자가 어느 일본인이 토마토의 일본어 발음법을 가르치는 것을 듣고 그 일본인이 일본어를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때 화자는 상대의 발언(일본어의 토마토 발음에 관한 강좌)을 들은 뒤 감각적으로 「이 사람이라면 일본어를 잘 가르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문(19)는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지금까지 리포트를 써본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지금의 상태라면 내일까지는 이 리포트가 끝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そうだ」가 사용될 경우에는 화자 자신이 작성하고 판단을 내린 문장이어야 하고, 그 관점이 주관성을 가진다. 즉,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한 문장은 「そうだ」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문장에 「なんとなく」나 「なんだか」 등의 불확실한 근거를 나타내는 부사가 들어가게 되면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임이 드러나기 쉬우므로, 이들 부사는 「そうだ」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자면, 「そう



だ」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졌을 때는 사용이 어려워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때문에 「そ  
うだ」가 근거로 하는 정보의 객관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 2. 「ようだ」의 의미용법

본 고찰에 들어가기 앞서, 「ようだ」의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보려고 한다.

「ようだ」는 활용하는 語의 연체형에 접속하고, 사물의 성질과 상태가 근접한 경우를 나타내며, 文末이 술어에 대한 화자의 구체적 판단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판단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라기 보다는, 대상의 상태를 진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표현하는 형식이다.<sup>19)</sup>

「ようだ」에는 여러 가지 용법이 있다. 본고에서는 「ようだ」가 文末에 왔을 때 어떠한 의미용법을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比況」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하나의 사물을 다른 것에 비유하여 말할 때 사용되는 용법이다. 이것은 「ようだ」의 용법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추량의 「ようだ」와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20) 彼の背中は私には山のようにみえた。

(21) 屈託のない、インド人の笑みは、いつだって私を柔らかく撫でるようだった。

위는 모두 「ようだ」의 비유의 표현이다.

특히 예문(20)의 표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비유의 표현이며, 이런 종류의 문은 부사 「まるで」와 함께 나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흔히 「A가 B와 닮았다」, 「A가 B와 유사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예문(21)의 경우는 「인도 사람의 환한 웃음」을 자신을 쓰다듬는 것으로 은유하여 나타낸 것이다. 예문(20)과 (21)은 모두 자기 자신의 주관적

---

19) 日本語教育学会編, 『日本語教育辞典』, 大修館書店, 1992, p.203

인 느낌을 나타낸 것이다. 화자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 주가 된다는 점이 추량의 「ようだ」와 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추량을 나타내는 「ようだ」는 어떤 命題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불확실한 것임을 나타내는 점에서 非確言型 모달리티 형식으로 분류된다.

「ようだ」는 화자의 판단에는 근거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발화시 발화자가 주요소가 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하였지만, 「ようだ」가 認識系 모달리티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아도 인식의 주체가 되는 발화자가 주요소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는 모든 용법의 「ようだ」에 해당된다.

(22) 電車が遅れている。何か事故があったようだ。

(23) 気のせいかも知れないが、それまでよりも大胆に動いているようだった。

예문(22)와 (23) 역시 판단의 주체는 발화자로, 모두 발화자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22)의 문장에는 전차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화자의 판단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고, 예문(23)의 경우는 화자 자신의 기분 탓일 지도 모른다는 전제가 문에 확연히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이 「ようだ」의 판단의 주체는 언제나 화자 자신이 된다. 그러므로 그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에 상관없이 판단에 대한 책임은 발화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ようだ」는 다른 추량표현에 비해 화자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면 「ようだ」문의 최종적인 판단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24)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軽い風邪のようですね。

(25) 外信報道を総合・分析すると、ソ連のクーデターは失敗する可能性が高いようだ。

예문(24)은 의사가 환자의 여러 측면을 검진하고 내리는 진찰의 결과이다. 진찰을 해 보았더니 가벼운 감기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가벼운 감기」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예문(24)의 경우는 의사로서 자신의 전문영역에 대한 판단이다. 이것은 의사인 화자의 지식과 지금까지의 경험에 바탕을 둔 판단으로, 화자는 자신의 말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자신의 발언이 「올바를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말한다. 반드시 올바를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량표현인 「ようだ」 없이, 「軽い風邪ですね」라고 단정어로 말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는 완곡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문(25)은 외신보도라는 정보를 판단의 근거로 삼아 화자가 종합·분석한 뒤 「쿠테타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여기서도 판단의 근거는 외신보도라는 직접 체험하지 않은 간접적인 정보였지만,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다름 아닌 화자임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ようだ」는 판단의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근거를 전제로 화자가 주체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ようだ」의 판단 근거가 되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부터는 「ようだ」의 판단의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6) 指輪をしていないところを見ると、彼は結婚していないようだ。

(27) 排水口に黒い汚れを見つけて、指で触れてみると、黴のようだった。

(28) 声を聞く限り、おさない女の子のようだった。

예문(26)은 시각적인 정보를, 예문(27)은 시각과 촉각의 정보를, 예문(28)은 청각적인 정보를 근거로 화자가 판단을 내리고 있는 문장이다.

먼저 예문(26)은 반지를 끼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그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예문(27)은 배수구의 검은 얼룩을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곰팡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예문(28)은 목소리만을 듣고 그 목소리의 주인이 어린 여자아이일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는 모두 판단 주체인 화자의 감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이다.

하지만 이처럼 시각정보, 촉각정보, 청각정보라는 식으로 감각을 분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들은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적 감각정보에 의해 내려지는 판단은 그 상황에서 느낀 정보를 바탕으로 복합적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경우를 상황 정보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예문(29)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으로부터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9) 小野さんの家にはだれもないようだ。

예문(29) 역시 「ようだ」가 쓰였으므로,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小野씨의 집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문장임을 알 수 있다. 예문(29)은 小野씨의 집에 가보았더니 불이 꺼져있고(시각정보), 인기척이 없고(청각정보), 초인종을 눌러도 답이 없었다(상황정보)거나, 小野씨의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다(상황정보)는 등의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둔 문장이다. 여러 정황들로 미루어 보아 화자는 小野씨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추측을 하게 된 것이다.

이상을 볼 때, 「ようだ」는 외적정보에 의존한 판단에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내적 정보를 근거로 하는 「ようだ」를 보도록 하겠다. 내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감이나 느낌, 생각 등을 말하는 것이다.

(30) この辺が体力の限界のようだ。

(31) 男性的魅力や、人間性はともかくとして、私は川崎にはいかなる時も恬淡といえなかった、ようだ。

예문(30)은 화자 자신의 현재의 컨디션을 돌아본 후, 스스로의 체력을 판단한 것이고, 예문(31)은 川崎에게 느끼는 화자 자신의 감정을 反省하여 판단한 것이다. 예문(30)은 자신의 상태를 되돌아보고 판단한 것이고, 예문(31)은 그때까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자신이 川崎에게 가지고 있었던 감정을 깨닫고 자신의 감정을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문(30)과 (31)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에 의존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다름이 아닌 화자 자신의 느낌·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反省에 의해 도출된 내적 정보이다. 예문(30)과 (31)과 같은 경우는 개인의 내에 존재하는 정보이므로,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한 타인이 알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이처럼 「ようだ」는 자기 자신의 감정(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적 정보에 의존한 판단도 내릴 수 있다.

「ようだ」는 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판단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종적인 판단은 화자가 내리고, 판단의 책임 또한 화자가 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32) ソーシャルメディア白書2012によると、日本におけるソーシャルメディア利用率は57%を超えているようだ。

(33) キャストが発表されましたが、聞くところによると新人の俳優さんが多いようです。

예문(32)는 「ソーシャルメディア白書2012」라는 책, 예문(33)은 「캐스팅에 대해 말해준 사람」이라는 정보의 출처가 있고, 이는 자신의 감각이나 생각이 아니다. 자신의 감각이나 생각에 의존한 추측보다는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에 그 판단의 근거를 두고 있다. 앞서 「ようだ」에는 화자 자신의 주체적 판단이라는 뉘앙스가 있다고 했으므로 얼핏보면, 예문(32)와 (33)의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판단의 근거를 직접 경험하거나 느낀 것이 아닌 간접적인 정보라고 하더라도,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태를 자신에게 가깝게 인식하고 취급하여 자신의 심정에 맞추어서 표현하고 있으므로, 예문(32)와 (33)은 어색하지 않은 문장이 된다. 예문(32)와 (33)은 화자 외부의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내린 판단이지만, 「신인 배우가 많은 것 같다」와 같이, 결론에 있어서는 자신의 주체적인 생각을 반영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용례는 「らしい」와 바꾸어 쓸 수 있지만 그 뉘앙스는 미묘하게 달라진다. 이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ようだ」는 직접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에도, 간접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에도 모두 사용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문장의 근거가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에 관계없이, 판단을 내리는 주체는 항상 화자 자신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 「らしい」의 의미용법

본격적인 고찰에 들어가기 앞서 「らしい」의 사전적 의미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접속 형태를 보면 「らしい」는 주로 체언, 형용동사의 어간 및 동사, 형용사, 조동사의 종지형에 접속한다. 어떤 사물에 대해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말하는 이의 판단 근거를 나타낸다.<sup>20)</sup>

「らしい」는 화자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대략 이러이러 할 것이다」라는 식의 2차적 판단이 추량가능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말하려 할 때 사용되는 것이다. 이는 화자가 직접 감각하거나 경험한 것이 아닌 간접적인 경험을 근거로, 자신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주체적인 판단이 아닌, 「2차적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숨음을 하고 있으므로, 최초의 판단은 화자가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

20) 上掲書, p.203

강조하고, 판단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는 뉘앙스를 표현한다.

(34) 日本製のテレビより韓国製のテレビの方が品質がいいらしい。

(35) 頂上まで上るのは、だいぶ骨がおれるらしい。

(36) ブータンという国は、男女関係について非常におおらかだ、と聞いたことがある。一夫多妻はもとより、一妻多夫というのものもあるらしい。

예문(34)와 (35), (36)은 모두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다.

먼저 예문(34)를 보자. 만약 화자가 일본산과 한국산의 텔레비전을 모두 사용해 보았다면, 예문(34)의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 된다. 왜냐하면 「らしい」는 화자가 직접 감각하거나 경험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추량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화자가 일본산과 한국산의 텔레비전을 모두 사용해 보고 판단한 것이라면, 이 문장은 「らしい」가 아닌 「ようだ」를 써야 비로소 문장의 성립이 인정된다. 고로 예문(34)의 문장에는 화자 자신이 직접 사용해 본 것이 아니고 「타인」이라고 하는 정보원이 있음을 쉽게 유추 할 수 있다.

이는 예문(35)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문(35) 역시 화자 자신은 대상이 되는 산의 정상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외부에서의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면 힘들다고 한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예문(36)의 경우는 부탄이라는 나라의 남녀관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고 언급하므로써 정보원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다. 이로써 「일부다쳐 뿐 아니라 일처다부도 존재한다」는 것은 화자 자신의 판단이 아닌 어디까지나 외부의 정보에 기대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와 같이 간접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추측은 듣는 이로 하여금 신뢰감을 가지게 한다. 화자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뉘앙스 덕분에 상당히 객관적인 발언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용법은 판단의 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보전달」이나

「伝聞」의 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듯 예문(34), (35), (36)은 화자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에 기댄 것이 아닌,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의 정보에 기대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인 근거는 화자의 외부에 존재하는 근거일 경우가 많다. 근거가 화자의 내부에 존재하게 되면 그것은 화자가 주체자가 되어 판단하는 것이 되므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용법은 「らしい」에는 없는 용법이므로, 화자 본인의 내부 상황을 근거로 추측하게 되면 어색한 표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예문에서는 인칭의 문제가 생긴다.

(37) どうやら風邪を引いたらしい。

(38) 全くの不意打ちで、ショックを受けているらしい。

예문(37)과 (38)은 주어가 반드시 3인칭이 되어야 하는 문장이다. 만약 주어가 1인칭인 「私」가 되면 (37)과 (38)은 부적절한 문장이 된다.

왜냐하면, 두 문장의 주어가 1인칭이 되면 화자 본인의 내부 상황을 근거로 추측한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らしい」에는 없는 용법으로, 만약 화자가 본인의 내부 상황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 「らしい」가 아닌 「ようだ」가 더욱 적절하다. 「らしい」는 원칙적으로 현실세계에 대해서 간접경험에 의한 지식추론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らしい」를 지배하는 주어는 3인칭으로 제한된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らしい」의 용법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나오는 것이 「らしい」는 판단의 책임을 화자가 회피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는 「らしい」가 「ようだ」와 자주 비교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화자의 판단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뒷받침 되어야하는 장면에서는 「らしい」가 부적절하다는 정도의 말이 되는 것이지, 결코 무책임한 판단이나 발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39) この磁器は江戸時代のものらしいですね。

예문(39)는 도자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문가의 말을 토대로 이야기한 문이다. 만약 이 문장의 화자가 문외한이 아닌 도자기를 감정하는 전문가였다면 이 문장은 어색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이나, 「제가 이 의견에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만…」이라는 태도로 이야기 하는 것은 매우 어색한 일이고, 또 그런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만약 예문(39)를 도자기전문가가 말했다면, 청자는 발언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실력마저 의심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らしい」는 책임을 지고 이야기해야 할 때나, 전문성과 책임을 요하는 논문 등에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らしい」는 막연한 미래나 가상 세계에 대한 추측은 거의 하지 않는다. 「らしい」는 과거의 사건이나 상황, 혹은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가상세계에 대한 추측은 하지 않는다.

(40) 部長は明日の会議に出席できないらしい。

(41) 傘が濡れているところを見ると、夕方に出かけていたらしい。

예문(40)은 이미 확정된 미래에 대한 추측이고, 예문(41)은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과거에 대한 추측이다. 예문(40)은 실제로 부장이 회의에 결석하는 것은 미래가 되겠지만, 화자가 부장이 「내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정보를 알게 된 시점은 과거가 된다. 화자는 과거에 누군가를 통해 알게 되었던 「부장의 내일 회의 결석」이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부장의 결석을 추리하고 있다. (41)도 마찬가지로 「우산이 젖어 있다」는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저녁에 외출 했을 것」이라고 과거의 행적에 대한

추측을 하는 표현이다. 여기에는 화자의 억측은 없고 상황의 종합에 따른 화자의 판단이 있다.

지금까지 간접적인 정보에 의존한 판단을 고찰 하였는데 지금부터는 발화 주체의 직접적인 정보에 의존한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래 발화 주체의 직접적 정보에 의존한 판단은 「らしい」보다 「よう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판단의 근거가 직접적인 정보라고 하더라도, 화자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거리를 두어야 하거나, 심리적 이유로 거리를 두고 싶은 경우에는 「らしい」를 사용하기도 한다.

(42) 「監禁」という言葉で彼の顔が強張った。いくら忘れ去ったつもりでも、苦痛や恐怖の記憶というものは消えないらしい。

예문(42)는 화자와 정보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예문이다. 이런 류의 문은 타인의 심리상태를 추측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화자가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으로 타인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타인의 심리상태를 유추했다하더라도, 이는 정확한 것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타인의 심리 상태를 아는 것은 어려운 일로, 표정이나 태도로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표정에서 유추되는 감정과, 감정의 주체자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감정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문(42)를 보면, 「彼」의 얼굴이 「감금」이라는 단어를 듣고 경직되는 것을 보고, 화자는 「아무리 잊었다고 해도, 고통이나 공포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듯하다」고 판단을 내린다. 이는 화자가 「彼」의 표정을 근거로 그가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 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경우 그 판단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다. 실제로는 「彼」가 과거의 좋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였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현재의 표정이라는 정보만으로 「고통과 공포의 기억이라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듯 하다」하고 화자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의견과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화자가 직접적으로 얻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고 완곡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화자가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 언급할 때도, 「らしい」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우 드문 경우로, 이때의 「らしい」 판단의 대상이 되는 자기 자신을 객체화시키는 뉘앙스를 가진다. 「판단의 대상이 되는 자기 자신」을 「판단을 내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 하므로써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로서 命題는 자기 자신의 일임에도 그것을 객체화시켜,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냉정하게 보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신의 사태와 거리를 두고 싶다는 심리적인 장벽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자신의 감정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거나, 이해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었다거나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심리적인 장벽이 생긴 것이 아니라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 거리를 두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직접경험에 대한 언급이라도 「らしい」를 사용할 수는 있다.

## 제 2절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의 상호비교

제 1절에서는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의 의미용법을 자세히 고찰하였다.

제 2절에서는 제 1절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의 기능적인 역할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의미적인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더욱 심도 깊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대상을 「そうだ」와 「ようだ」, 「ようだ」와 「らしい」, 「そうだ」와 「らしい」로 두 개씩 짝을 지어 상호간의 비교를 해 나가려고 한다.

### 1. 「そうだ」와 「ようだ」의 비교

먼저 형태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를 보면, 「ようだ」는 술어의 テンス 분화가 인정되는 데 반해, 「そうだ」는 인정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43) 彼は来るようだ。

(43') 彼は来たようだ。

(44) 彼は来そうだ。

위의 예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ようだ」의 경우 술어의 과거형에도 접속 가능하지만, 「そうだ」는 오직 현재형에만 접속이 가능하다. 이는 「そうだ」의 기본적인 의미에서 기인한다. 「そうだ」의 기본의미는 미정·미확인의 사태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반면, 「ようだ」는 예문(43)과 (43')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래형과 과거형 모두에 접속이 가능하다. 이는 「そうだ」가 양태에 근거한 불확실한 추정을 주로 하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そうだ」는 의견 등으로 예견·예측에 가까운 판단을 하는 한편, 「ようだ」는 「そうだ」보다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는 정보에 근거한 판단까지 폭넓은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45) (TV에서 베트남 음식이 나오자) あっ、おいしそう!!

(46) ベトナム料理はおいしいようだ。

예문(45)는 화자가 TV를 보고, 음식의 의견만 보고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말이다. 때문에 예문(45)의 베트남의 음식에 대한 추정 「おいしそう」는 화면에 비친 외형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시각에 의거한 직감적인 예측인 것이다. 그에 반해 예문(46)은 베트남 요리에 대해 사전에 「베트남 요리는 맛이 있다」는 정보(예를 들면, 누군가에 의해 들었다), 혹은 「베트남 요리가 맛있을 것 같다」는 정황(예를 들면, 주변에 베트남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을 접하고, 자신이 판단을 내린 것이므로 「そうだ」보다

는 더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2) 電車が遅れている。何か事故があったようだ。

(33) キャストが発表されましたが、聞くところによると新人の俳優さんが多いようです。

(22') 電車が遅れている。何か事故がありそうだ。(\*)

(33') キャストが発表されましたが、聞くところによると新人の俳優さんが多そうです。(\*)

예문(22)와 (33)의 「ようだ」를 「そうだ」로 바꾸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예문(22)는 현재 상황에 대한 발화자의 불확실한 판단을 나타내고 있고, 예문(33)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화자가 판단을 내리고 있는 문장이다.

「そうだ」에는 이와 같이 어떤 사태에 대해 주체적으로 분석을 하여 판단을 내리는 용법(예문(22))이나,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정보를 토대로 주체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용법(예문(33))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そうだ」는 화자가 주어가 되지 못하는 반면, 「ようだ」는 화자가 주어가 될 수 있다.

(47) 彼はデートの間ずっと楽しそうだった。

(31) 男性的魅力や、人間性はともかくとして、私は川崎にはいかなる時も恬淡といてほしかった、ようだ。

예문(47)은 주어를 생략하면 「デートの間ずっと楽しそうだった」가 되는데 이 경우, 데이트 중에 즐거워 한 것은 청자(2인칭)나 3인칭이 된다. 이 경우에는 화자(1인칭)가 주어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예문(31)을 보면 문장의 주어는 화자로, 화자 자신의 기분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そうだ」가 주로 타인의 감정을 예측하는 표현으로 화자 본인의 감정을 근거

로는 사용 할 수 없는 표현인데 반해, 「ようだ」는 본인의 감정을 근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そうだ」와 「ようだ」의 문장에서 판단의 주체는 항상 자신이 된다. 어떤 상황이나 양태로부터 그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주체는 다름 아닌 화자이다. 때문에 객관적인 실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화자는 자신의 발언에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일단 자신이 내린 판단이므로 화자 자신의 내면에서는 완성된 일이고, 확정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과 발언의 객관적 신뢰성의 문제를 묻는다면, 「そうだ」를 사용한 문과 「ようだ」를 사용한 문은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

(45)와 (46)의 예문을 다시 보도록 하자.

(45) (TV에서 베트남 음식이 나오자) あっ、おいしそう!!

(46) ベトナム料理ははおいしいようだ。

예문(45)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이고, 예문(46)은 정보원이나 정황증거를 가지는 판단이다. 신빙성의 정도를 묻는다면, 당연히 (46) 쪽이 있다. 예문(45)보다는 (46)쪽의 정보가 더 실제와 가까운 확률이 높은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근거의 객관성과 판단의 신뢰도의 측면을 묻는다면, 「そうだ」보다는 「ようだ」 쪽이 더 높다는 것이다.

「そうだ」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양태에 근거한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시각정보나 청각정보, 촉각정보 등의 직접 경험이 가능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지만, 「そうだ」는 命題 본질에 대한 미정·미확인 상태에서의 근거에 지나지 않으므로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기는 어렵다. 정보 그 자체에 상당히 신빙성이 부족한 것이다.

그에 반해 「ようだ」는, 시각정보나 청각정보를 포함한 상황정보 등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부터, 남에게 전해 들은 정보나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감정에 기반하는 내적정보까지, 다양한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 「ようだ」는 위의 어떤 정보가 되었든,

그 정보에 근거한 판단은 모두 화자가 주체적으로 내리고 있다.

「ようだ」 안에 「근거가 있는 말이다」라는 함의와 「(근거가 어떤 것이든)판단은 내가 내린 것이다」라는 함의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본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そうだ」와 「ようだ」를 비교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분류	そうだ	ようだ
화자 의존도	높다	높다
정보 의존도	높다	낮다
정보의 직·간접도	직접적	직·간접적
발언에 대한 화자의 책무성	-	강하다
화자의 命題에 대한 신뢰 여부	-	신뢰한다
인칭의 제한	있다 (2·3인칭으로 제한)	없다

<표-2> 「そうだ」와 「ようだ」의 비교

## 2. 「ようだ」와 「らしい」의 비교

「ようだ」와 「らしい」는 일본어의 추량 표현 중 그 구분이 쉽지 않은 표현으로, 이 두 표현의 비교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져 왔다.

「ようだ」와 「らしい」는 모두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이면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는 화자의 판단에는 근거(정보)의 존재가 항상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ようだ」의 판단의 주체는 화자 자신인데 반해, 「らしい」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차용하는 듯 한 느낌을 준다. 「らしい」에는 화자가 최종판단에 대해 반 발짝 떨어져 있는 듯 한 뉘앙스가 있는 것이다. 이는 즉, 화자는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8) こっちの方がおいしいようだ。

(49) こっちの方がおいしいらしい。

예문(48)과 (49)는 모두 성립하는 문이다. 하지만 두 문의 의미는 약간 달라진다. 예문(48)의 화자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든,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으로 「こっち」가 더 맛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문(49)의 화자는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그렇게(「こっち」가 더 맛있다고) 들었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문(48)과 (49)에 다음과 같은 근거를 첨가해 보자.

(48') 両方食べてみたが、こっちの方がおいしいようだ。

(49') 両方食べてみたが、こっちの方がおいしいらしい。(\*)

예문(48')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만, 예문(49')는 상당히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 문장에서 들고 있는 근거는, 「둘 다 먹어 보았다」고 하는 직접 경험에 의존한 직접적



인 정보이다.

「ようだ」는 직접적인 정보로부터 추정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원을 밝혔는지 숨겼는지에 상관없이 문장이 성립된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らしい」는 간접적인 경험이 근거 될 때만 문장이 성립된다. 직접경험은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행한 것으로, 최종적인 판단에 화자 자신이 개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らしい」의 본래 의미인,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은 내가 아닌 정보원」이라는 것과 모순된다. 때문에 예문(49')와 같이 판단의 근거가 화자의 직접경험에 의존한 경우에는 「らしい」를 사용할 수 없다.

예문(49')의 경우, 양쪽 모두 먹어 본 후 결론을 내린 것이므로 이 판단은 「참」이다. 이와 같이 命題에 대한 판단이 「참」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らしい」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반면, 「ようだ」의 경우는 命題에 대한 판단이 「참」임이 분명한 경우라도 완곡의 의미를 담아 사용이 가능하다.

위에서 「ようだ」는 직접경험에 의한 판단이 가능하고, 「らしい」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즉, 「らしい」는 주어가 2인칭이나 3인칭으로 좁혀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1인칭 주어의 경우는 간접경험이 아닌 직접경험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주어를 감춘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다.

(30) この辺が体力の限界のようだ。

(30') この辺が体力の限界らしい。

예문(30)과 (30')는 문의 주어가 달라진다. 예문(30)과 (30')의 문장을 보면, 자연스럽게 (30)은 화자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30')는 화자가 아닌 제 3자의 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30')의 문장에는 1인칭인 「私」는 주어가 될 수 없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らしい」는 타인의 일, 즉 간접적인 경험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되기 때문이다.<sup>21)</sup>

이는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존재하는가의 문제와도 상통한다. 「ようだ」의 근거는 화자의 내부(직접경험)와 외부(간접경험), 어디에서 얻은 근거라도 사용 할 수 있지만, 「らしい」의 근거는 항상 화자의 외부에 존재한다.

또, 화자가 자신의 추정판정에 전문성을 띠고 책임을 지어야 하는 장면에서는 「らしい」보다는 「ようだ」가 적합하다. 「らしい」는 자신의 발언의 추정판정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청자들로 하여금 발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때문에 논문 등의 논리적이고 자기 주장적인 글(발언)을 쓸 때 「らしい」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원이 「타인에게 들은 정보」일 경우는 「ようだ」도 「らしい」도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그 뉘앙스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33) キャストが発表されましたが、聞くところによると新人の俳優さんが多いようです。

(33”) キャストが発表されましたが、聞くところによると新人の俳優さんが多いらしいです。

예문(33)의 「신인배우가 많은 것 같다」는 판단은, 화자가 캐스팅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제 3자에게 듣고, 「화자가」, 「주체적으로」 내린 판단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예문(33”)의 「신인배우가 많은 것 같다」는 판단은, 화자가 제 3자에게 「캐스팅 발표의 정보」와 「신인 배우가 많은 것 같다」는 판단까지 듣고 그 추정판단까지 차용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ようだ」는 타인에게서 전해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화자 자신이 주체적으로 판단을 내린다. 그에 반해 「らしい」는 타인에게 전해 들은 것은 정보뿐만이 아니다. 그 정보에 대한 판단까지 듣고,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らしい」는 판단의 최종적 책임은 화자가 아닌, 정보원에 있다. 때문에 「らしい」는 정보의 전달이라는 의

---

21) 단,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거리를 두어야 하거나,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을 때는, 직접적 정보나 자기 자신에 대해 언급할 때도 쓸 수 있다.

미가 강하게 나타난다.

본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ようだ」와 「らしい」를 비교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분류	ようだ	らしい
화자 의존도	높다	낮다
정보 의존도	낮다	높다
정보의 직·간접도	직·간접적	간접적
발언에 대한 화자의 책무성	강하다	약하다
화자의 命題에 대한 신뢰 여부	신뢰한다	신뢰한다
인칭의 제한	없다	있다 (3인칭으로 제한)

<표-3> 「ようだ」와 「らしい」의 비교

### 3. 「そうだ」와 「らしい」의 비교

「そうだ」와 「らしい」는 화자에게 일어난 사태에 대한 판단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유사점을 가진다. 그러나 그 배경은 상당히 다르다. 그 이유는 「そうだ」는 양태에 근거한 불확실한 판정인데 반해, 「らしい」는 간접경험에 의존한 판단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そうだ」는, 양태에 근거해서 추정판단 하는 것으로, 이는 시각이나 청각 등의 직접적 근거를 통해 화자가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때문에 「そうだ」의 판정문을 작성하고 판단하는 것은 화자가 되지만, 화자가 판정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는 특히 타인의 감정, 감각을 예측 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50) (칼에 베어 피가 나는 손을 보고) あら、痛そう!!

예문(50)은 손을 벤 자국을 보고(시각) 「아플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아플 것 같다」는 것은 화자의 판단이고, 실제로 통증을 느끼는 사람은 손을 벤 상대이다. 하지만 만약 손을 벤 사람이 자신이라면, 이러한 추측을 할 필요가 없다. 만약 화자의 손이 벤 것이라면, 화자는 「아프다」는 감각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프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되기 때문에 굳이 추측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そうだ」는 직접경험(칼에 베어 피가 나는 손의 목격)에 근거한 판단이다.

그에 반해 「らしい」는 간접경험에 의한 판단에만 사용된다.

(51) 痛いらしい。

예문(51)의 경우, 예문(50)과 같은 臨場感은 없으며, 누군가에게 제 3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예문(50)을 사용 할 수 있는 경우는, 친구가 학교에 결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아프기 때문이라고 누군가에게 전해 들어서 화자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화자에게 친구가 왜 결석했는지를 물어보았다면, 화자는

(50)과 같이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51)의 문장을 말한다면 상당히 어색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51)과 같이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다시 전달할 때 (50)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도 어색하다. 이는 「そうだ」에 타인에 의해 판단된 정보를 사용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そうだ」와 「らしい」는 모두 판단의 대상이 자신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이유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そうだ」는 직접 경험한 직접적 정보와 내적 정보에 의한 판단에 모두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らしい」의 기능은 간접정보에 의한 판단 및 정보전달이 주가 된다. 「らしい」는 정보원이 명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정보원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らしい」가 사용되면 청자는 자연스럽게 정보원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의미면에서 따져보자면 「そうだ」와 「らしい」가 형용사에 붙어 상태를 나타낼 경우, 「そうだ」가 발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의 판단이라고 한다면, 「らしい」는 간접적인 정보에 의하므로, 화자 내부에서 정리된 사실에 가깝다.

내용면에서는 「そうだ」는 근거가 화자의 외부에 있으나 그에 대한 화자의 순간적 판단이므로, 「らしい」에 비해 객관적 근거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에 반해 「らしい」는 그 근거도 근거를 바탕으로 도출된 판단도 외부에 있으므로 더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そうだ」는 전문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そうだ」는 직접경험을 근거로만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らしい」의 경우에는 전문의 기능이 있다. 이 경우 정보전달의 의미를 강하게 띈다.

본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そうだ」와 「らしい」를 비교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분류	そうだ	らしい
화자 의존도	높다	낮다
정보 의존도	높다	높다
정보의 직·간접도	직접적	간접적
발언에 대한 화자의 책무성	-	약하다
화자의 命題에 대한 신뢰 여부	-	신뢰한다
인칭의 제한	있다 (2·3인칭으로 제한)	있다 (2인칭으로 제한)

<표-4> 「そうだ」와 「らしい」의 비교

## 제 3장 結論

본고는 일본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추량의 의미를 가진 조동사 중에서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의 의미용법을 알아보고, 화자와 정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고찰해보았다.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미특징은, 이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표현하는 형식이 아니라, 외부의 정보를 소재로 하여 命題에 대한 화자의 예측, 추정, 판단 등의 주관적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어학에서는 이를 모달리티라고 부른다.

본고에서 필자는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를 나성영(1995)의 분류를 근거로 「근거 의존 판단형」의 모달리티로 간주하고, 이들 모두가 추량을 표현한다고 전제하고, 일본어의 文末 모달리티 표현 중 조동사가 文末을 좌우한다는 입장에서, 이들 조동사가 文의 의미에 어떻게 관계하는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의 의미 용법연구에서 각각의 표현별로 고찰하고, 각각의 표현을 상호 비교하여 유의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そうだ」의 의미용법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そうだ」의 용법에는 대상의 의견이나 태도의 관찰을 통한 묘사, 불확실한 추정판단, 미정·미확인 사태에 대한 예측·예상, 직전, 非実 등이 있었다.

「そうだ」의 의미용법상의 특징적인 면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자 자신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이미 확정된 사실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셋째, 화자 자신의 직접 경험에 의한 판단 아니면 「そうだ」를 사용 할 수 없다. 즉, 간접적인 정보에 근거한 문장에는 「そうだ」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넷째, 판단의 객관성과 논리적 필연성이 부족하다.

다음으로 「ようだ」의 용법에는 比況의 의미와 불확실한 단정, 양태의 용법이 있었

다.

「ようだ」의 의미용법상의 특징적인 측면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거의 존재가 항상 암시된다. 둘째, 발화자의 기분이나 상태에 대해 말 할 수 있다. 즉, 인칭의 제한이 없다. 셋째, 판단의 주체는 언제나 화자 자신이다. 넷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직접적 근거와 간접적 근거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세 표현 중 가장 넓다.

「らしい」의 용법에는 2차적 판단, 불확실한 판단, 정보전달 등이 있다.

「らしい」의 의미용법상의 특징적인 측면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거의 존재가 항상 암시된다. 둘째, 판단의 근거는 화자의 외부에 존재한다. 즉, 인칭의 제한이 있다. 셋째, 막연한 미래나 가상에 대한 추측은 불가능하다. 넷째, 화자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판단의 주체는 화자가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다섯째,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직접적 정보나 화자 자신이 대상이 되었을 때 「らしい」가 사용되면, 그 사태로부터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있음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의 상호비교에서는, 각각의 표현을 「そうだ」와 「ようだ」, 「ようだ」와 「らしい」, 「そうだ」와 「らしい」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먼저, 「そうだ」와 「ようだ」의 비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そうだ」와 「ようだ」의 문장에서 판단의 주체는 항상 화자 자신이 된다. 둘째, 「そうだ」는 감각(직접적 정보)에 근거한 예측이 주인 반면, 「ようだ」는 감각, 내적 정보, 간접적 정보 등, 근거가 다양하다. 다시 말해, 「そうだ」는 판단의 신뢰도가 낮지만, 「ようだ」는 그 판단의 신뢰도가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そうだ」는 화자가 판단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반면, 「ようだ」는 화자가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ようだ」와 「らしい」를 비교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ようだ」와 「らしい」는 모두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둘째, 「ようだ」는 판단의 주체가 화자 자신인데 반해, 「らしい」는 화자 자신이 판단의 주체가 아니다. 셋째, 「ようだ」는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추정판단이 가능한데 반해, 「らしい」는 간접적



인 경험에 의한 판단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らしい」는 주어의 인칭이 제한된다. 넷째, 「ようだ」가 전문성을 띠는 발언에 적합한데 반해, 「らしい」는 전문적 지식에 대한 발언에는 적합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そうだ」와 「らしい」의 비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そうだ」와 「らしい」는 화자에게 일어난 사태에 대한 판단은 하기 어렵다는 유사점을 가진다. 때문에 두 표현 모두 인칭의 제한이 생긴다. 둘째, 「そうだ」는 화자가 주체적으로 판단하는데 반해, 「らしい」는 「そうだ」보다 화자가 수동적으로 나타난다. 셋째, 「そうだ」는 직접 경험한 직접적 정보와 내적 정보에 의한 판단에 사용 할 수 있지만 「らしい」는 간접정보에 의한 판단 및 정보전달이 주가 된다. 넷째, 「そうだ」는 「らしい」에 비해 객관적 근거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다섯째, 「そうだ」는 전문의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らしい」는 가능하다.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의 상호 비교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분류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
판정·판단·예측의 근거	있다	있다	있다
화자 의존도	높다	높다	낮다
정보 의존도	높다	낮다	높다
정보의 직·간접도	직접적	직·간접적	간접적
발언에 대한 화자의 책무성	-	강하다	약하다
화자의 命題에 대한 신뢰 여부	-	신뢰한다	신뢰한다
인칭의 제한	있다 (2·3인칭으로 제한)	없다	있다 (3인칭으로 제한)

<표-5>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의 비교

이상으로 필자는 본고를 통해 文末에 나타나는 추량조동사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의 각각의 의미용법을 고찰하고, 각각의 표현을 상호 비교하여 유의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필자는 일본어의 모달리티 중 추량을 나타내는 다른 여러 조동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국어와의 대응관계에 관해서 다루지 못한 점, 마지막으로 의미와

용법적인 측면의 고찰에 치우쳐 형태적인 측면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본고의 한계라고 생각하며, 이 한계점들은 이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I. 단행본

- 仁田義雄, 『日本語のモダリティと人称』, ひつじ書房, 1991
- 益岡隆志, 『モダリティの文法』, くろしお出版, 1991
- 森山卓良·仁田義雄·工藤浩, 『日本語の文法3 モダリティ』, 岩波書店, 2000
- 森山卓良, 『日本語における「推量」をめぐって』, 言語研究, 1992
- 森田武 외, 『言葉の意味3-辞書に書いてないこと』, 平凡社, 1982
- 森田良行, 『基礎日本語2』, 角川書店, 1980
- 宮島達夫·仁田義雄, 『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上)』, くろしお出版, 1995
- 阪田雪子·倉持保男, 『文法Ⅱ-助動詞を中心にして-』, 国際交流基金, 1980
- 鈴木一彦·林巨樹, 『品詞別日本文法講座·助動詞Ⅰ』, 明治書院, 1972
- 山口明穂·秋本守英 編, 『日本語文法大辞典』, 明治書院, 2001
- 陽沢行吉郎, 『国語法定設』, 明治書院, 1979
- 日本語教育学会編, 『日本語教育事典』, 大修館書店, 1982
-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 『現代日本語文法 4-第8部 モダリティ』, くろしお出版, 2003
- 塚原鉄雄, 『新講日本文法指導要綱』, 中央図書出版社, 1974
- 北原保雄, 『日本語助動詞の研究』, 大修館書店, 1981
- 寺村秀夫,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 くろしお出版, 1984
- 寺村秀夫,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Ⅲ』, くろしお出版, 1984
- 時枝誠記, 『日本語文法口語編』, 岩波書店, 1950

### II. 학술지

- 김동욱, 「「だろう」와 「ようだ」「らしい」의 차이」, 『日語日文学研究』 第31編, 1997
- 나성영, 「日本語モダリティにおける推論型の意味機能」, 『日本学報』 35, 1995
- 윤상실, 「日本語の非確言的表現における話者の役割-現代語のだろうようだらしいそうだの弁別特徴をめぐって」, 『国語国文研究』, 北海道大学国文学会, 1989
- 柏岡珠子, 「ヨウダとラシイに関する一考察」, 『日本語教育』 41, 1980
- 木下りか, 「ヨウダ・ラシイ-真偽判断のモダリティの体系における「推論」」, 『日本語教育』 96, 1998
- 菊地康人, 「ようだ」と「らしい」-「そうだ」「だろう」との比較を含めて-」, 『国語学』, 第52卷1号, 2000
- 田野村忠温, 「「らしい」と「ようだ」の意味の相違について」, 『言語学研究』 10, 1991
- \_\_\_\_\_, 「現代語における予想の「そうだ」の意味について-「ようだ」との対比を含めて-」, 『国語語彙史の研究』 12, 1992
- 早津恵美子, 「らしいとようだ」, 『日本語学』, 明治書院, 4月号, 1988

### Ⅲ. 논문

- 백수희, 「日本語의 推量表現에 관한 研究-そうだ·ようだ·らしい를 中心으로」, 朝鮮大学校 教育大学院 学位論文, 2002
- 장진아, 「日本語文末推量表現에 관한 研究」, 동아대학교대학원 학위논문, 1998